

금연약물요법-바레니클린

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과/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

김 철 환

서 론

대부분의 흡연자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보다 강한 마약성 물질인 니코틴에 ‘중독’된 상태이다.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단지 “마약은 나쁘니까 빨리 빠져나오라.”라고 말한다고 마약 중독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? 흡연도 마찬가지이다. 흡연자가 금연에 이르도록 하려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. 사회적으로는 담뱃값 인상, 모든 실내 공간 및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등 법적, 제도적 규제 등이 필요하고, 아울러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상담 기회 제공, 그리고 금연 약물요법 등 개인별 니코틴 중독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. 금연 약물요법 중에 현재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 바레니클린(상품명; 챔픽스)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보자.

본 론

바레니클린은 금연을 위해 개발된 첫 비니코틴성 약물로, 기존의 니코틴 대체제와는 달리 뇌의 니코틴 수용체($\alpha 4 \beta 2$)에서 작용제와 길항제 두 가지 작용을 함으로써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니코틴의 효과를 차단한다.

한국과 대만 흡연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, 12주 금연 성공률은 59.5%로 위약군 32.3%에 비해 높았다. 12주간의 챔픽스 치료 후 12주간의 약물치료 없는 기간을 포함한 24주 금연율 역시 46.8%로 위약군 21.8%보다 높았다. 이런 결과는 미국, 유럽, 그리고 일본 등에서 실시된 임상시험과도 유사한 결과이다. 바레니클린은 위약군에 비해 12주 금연율이나 1년 금연율 모두 기존 금연치료제인 부프로피온에 비해서 약 2~3배 높았다.

바레니클린의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은 메스꺼움(nausea)이며, 그 외에도 드물지만 오심, 수면장애, 변비, 고창, 구토, 자살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. 한국인 중 바레니클린으로 금연을 시도하던 남자가 자살에 성공한 부작용 보고 사례가 1건 있었다. 이 사건은 바레니클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불분명하지만 처방 의사의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.

결 론

바레니클린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연보조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는 약물이며, 금연의 1차 보조제로 권장된다. 아울러 과거 다른 약물로 금연을 시도하다 실패한 금연시도자에게 우선 권장되며, 부작용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가 필요하다.

참 고 문 헌

- Shih-Tzu Tsai, Hong-Jun Cho, Huey-Shinn Cheng, Cheol-Hwan Kim, Kuang-Chieh Hseuh, Clare B. Billing, Kathryn Williams. Varenicline, a Selective $\alpha 4 \beta 2$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Partial Agonist, as a New Therapy for Smoking Cessation in Asian Smokers. *Clinical Therapeutics* 2007;29(6):1027-1039
- Silagy C, et al. *Cochrane Database Syst Rev.* 2004;(3):CD000146.
- Jorenby D, Hays JT, Rigotti NA, et al. Efficacy of varenicline, an $\alpha 4 \beta 2$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partialagonist,vs. placebo or sustained-release bupropion for smoking cessation: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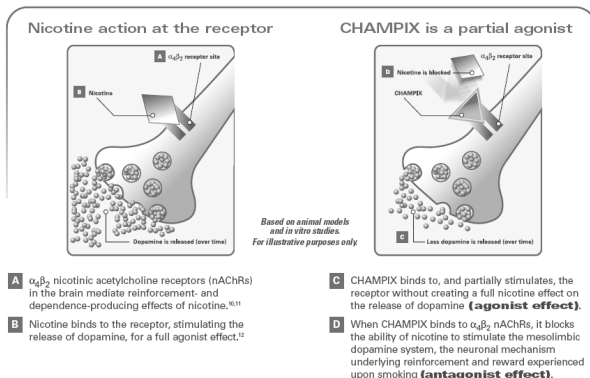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바레니클린의 작용기전.

randomized controlled trial. JAMA 2006;296:56-63.
Gonzales D, Rennard SI, Nides M, et al. Varenicline, an $\alpha 4 \beta$
2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partial agonist,vs.sustained-

release bupropion and placebo for smoking cessation:a
randomized controlled trial. JAMA 2006;296:47-55.